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2강 '경제 동향과 부동산 시장'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금리에 주목하면 부동산 전망 보인다”

### 美 기준금리 동향 따르는 韓 금리...당분간 인하 난망 경기 침체에도 향후 부동산 가격 도십지 중심 이상향



“금리 인하가 지속 되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때가 부동산 시장 저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9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2강에서 권대중(사진)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경제 동향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권 교수는 “최근 태연 건설 사태로 부동산 PF 불안이 지속되고 지난해 기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국내 민간 부채가 5천조원에 육박했다”며 “가계부채가 터지면 IMF 외환위기 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국내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했다.

권 교수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1-2월 국내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상황이 좋아진 영향보다는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흑자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경제 전망도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올해부터 나아질 것으로 보고, 일본은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은 러·우 전쟁으로 하락세를 걷다 회복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고용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 실제로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제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 국내 금리 또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자기자본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수월할 때 아파트 등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미국과 국내 금리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9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2강에서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경제 동향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정은슬 기자

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가 부동산 시장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후 권 교수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찬찬히 짚어 나가며 시기마다 규제를 완화·강화하거나 세금을 부가·면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수도권과 일부 광역 도시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 수요자가 될 젊은 세대는 첨단화, 고급화, 기능화된 새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교수는 “광주의 경우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주택보다 도시 재생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꼭 아파트를 매매해야 한다면 대단지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며 강의를 마쳤다.

한편 권대중 교수는 현재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 (사)한국부동산 융복합학회 회장,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등 부동산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은슬 기자



목포소방,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목포소방서는 10일 “전날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학·일반부 총 5팀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8분간의 연극 형식으로 진행했다.

순위는 ▲심폐소생술 적정성 ▲무대 표현 ▲자동심장충격기,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 장비 평가 등을 통해 점수를 합산,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독수리(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팀이 수상에 오는 19일 전남소방본부가 주관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목포를 대표해 출전한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매년 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연대회를 통해 초기 발견자의 대처가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농어촌공 담양지사,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최근 서원신농지은행관리부장을 비롯해 담양지사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소방서와 합동으로 2024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직장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 상황을 가정해 경보전파, 소방서 신고, 대피 및 중요물품 반출 연습과 응급구조·소방대 유도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훈련 후에는 담양소방서에서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상황 시 대응 요령 등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직원들이 소화기를 직접 사용하면서 화재 초기 진압 능력을 발휘했다.

김경경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은 “담양지사 전 직원은 소방훈련을 통해 직장 자위소방대 임무를 숙지하고 유사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회원 만족도 극대화...소중한 인연 이어갈 것”

### 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원우회장에 이형연 지형건설 대표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원우회장에 이형연(사진) 지형건설 대표가 선출됐다. 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아카데미 원우회는 지난 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이형연 대표를 원우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대표는 향후 1년 동안 창조클럽아카데미

원우회를 이끌면서 회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원우들이 11기에 참여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는데, 이런 의미 있고 뜻 깊은 모임에서 회장을 맡게 돼 큰 부담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건설업을 하면서 지식을 터득하고 지혜를 구하고자 기존에 몇몇 아카데미에 등록된 경험이 있지만, 이번 광주매일신

문 11기 창조클럽아카데미는 유독 새롭고 기대가 되며 설렌다”며 “강의는 물론 새로운 선·후배와의 인연도 소중하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인생 중년에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11기 원우 대부분이 최선을 다하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 올해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즐거움도 함께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며 “저와 집행부는 원우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회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최고의 아카데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슬 기자



## 조선대 ‘글로벌대학 30 발전기금 조성 발대식’

조선대학교의 글로벌대학 30 지정과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을 위해 대학 전 구성원이 똘똘 뭉쳤다.

조선대는 10일 “전날 본관 2층 청춘이룸에서 ‘글로벌대학 30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범 조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선대 김춘성 총장·전제열 부총장·김현우 대외협력처장장과 조선대 총동창회 배종용 수석부회장·이석필 사무총장·최호범 사무처장, 김명식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 양고승 조선대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지속가능한 대학의 성장 발판을 마련을 위해 대학 전 구성원의 모금 참여를 확산하고, 지방 소멸·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과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대는 모금 목표액을 2030년까지 300억원으로 설정했다.

김춘성 총장은 “조선대가 가진 민립대학의 정체성과 방향은 곧 상생의 가치”라며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대, 글로벌대학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총동창회를 비롯한 범 조선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이 기자



## 전남교육청-도체육회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협약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전날 도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전남도체육회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단체는 ▲전남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분야 물적 인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 ▲지역과 연계한 학교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류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남형 아침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인 ‘기지개(氣知開)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체육회 산하 시군체육회 소속 전문체육지도자를 보내 희망학교에 배치하고, 강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전남의 건강한 학생을 기르기 위한 오늘 업무협약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신체활동 활성화에서 나아가 신체활동이 일상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전남의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탄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 (주)신호엔지니어링, 구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구례군은 “최근 임수연 (주)신호엔지니어링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신호엔지니어링은 2003년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녹색 성장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수연 대표는 “평소 구례와 연을 맺어 오며 지역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고민해 왔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구례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강화해 보다 안전한 치안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